

# 『會三經』의 六大成象을 中心으로 한 韓醫學的 研究

오정호<sup>1</sup> · 반창열<sup>1</sup> · 박황진<sup>1</sup> · 이상남<sup>1</sup> \*

## A Stud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ocusing on Yookdaesungsang(六大成象) in 『Hoesamgyeong(會三經)』

Oh lung-Ho<sup>1</sup> · Ban Chang-Yul<sup>1</sup> · Park Hwang-Jin<sup>1</sup> · Lee Sang-Nam<sup>1</sup> \*

<sup>1</sup>Dept. of Qigo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This study is based on 『Hoesamgyeong(會三經)』, the interpretation of the Lecture on Truth of 『Samilshingo(三一神誥; Korea's national scripture)』. An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oretical system of Korean traditional qigong training by doing research on the principles of qigong that are contained in Yookdaesungsang(六大成象) on the basi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Yookdaesungsang(六大成象) is the ideas that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Hoesamgyeong(會三經)』. Yookdaesungsang(六大成象) refers to Kong(空), Yol(熱), Jin(震), Seup(濕), Han(寒) and Ko(固), which mean six elements of nature. And they correspond with Sung(性), Myoung(命), Jung(精), Sim(心), Ki(氣) and Shin(身) respectively, which are fundamental components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the Lecture on Truth of 『Samilshingo(三一神誥)』.

This has a thread of connection with the ideas of 'the unity of nature and human beings(天人合一)' or 'the correspondence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天人相應)'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From the standpoint of modern science, what are more tangible such as Seup(濕), Han(寒), and Ko(固) are considered as changes in states of matter by activities, while what are relatively intangible such as Kong(空), Yol(熱), and Jin(震) are regarded as wave energy.

And in the ideas of three yin(三陰) and three yang(三陽), on which the meridian system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s based, Taeyang(太陽)-Soeum(少陰), Yangmyung(陽明)-Taeum(太陰), and Soyang(少陽)-Gweoleum(厥陰) are respectively ins and outs of the human body and they keep the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such as cold(寒)-hot(熱), dry(燥)-wet(濕), and slow(緩)-fast(急). As these cold(寒)-hot(熱), dry(燥)-wet(濕), and slow(緩)-fast(急) correspond with Han(寒)-Yol(熱), Jin(震)-Seup(濕), and Kong(空)-Ko(固), the correlation between Yookdaesungsang(六大成象) and the meridian system can be ascertained.

As mentioned above, the principles of Qigong in 『Hoesamgyeong(會三經)』 are based on traditional ideas and accord closely with the principl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on the correlations between principles of Qigong unique to Korean tradition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required.

**Key Words** : Qigong, 『Hoesamgyeong(會三經)』, Yookdaesungsang(六大成象), Traditional Korean Medicine.

## I. 緒 論

\* 교신저자 : 이상남,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  
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기공학교실  
E-mail : lsn1974@dhu.ac.kr Tel : 053-770-2242

투고일 : 2014년07월14일 수정일 : 2014년08월03일  
게재일 : 2014년08월05일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養生法, 즉 한국 전통 氣功이 존재해 왔는데, 고구려 시대 재상이던 乙巴素가 편찬한 『參佺戒經』에서는 “上壽者 養生有度 仙骨化爲身 挹日華 飲露液 筋健氣俏 揮煖裳 享甘旨 鶴髮童顏 延年益壽”<sup>1)</sup>라고 하였고, “仙安者 參佺成度 主名山勝地 尙志高大 徵實務白 養生衍年 飛昇大空”<sup>2)</sup>이라고 하여 몸과 마음을 닦아 신선과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養生의 목적이며 養生에는 일정한 범도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독자적인 氣功은 신선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三大經典인 『天符經』, 『三一神誥』, 『參佺戒經』을 뿌리로 하여 발전해 왔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三一神誥』는 한국 氣功의 역사와 그 기원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조등<sup>4)</sup>은 “한국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공수련 단체에서는 『天符經』, 『三一神誥』, 『參佺戒經』의 三大經文과 ‘弘益人間 理化世界’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였고, 특히 『三一神誥』는 氣功의 三要素인 調心, 調息, 調身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고 하였다.

『三一神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철학적, 종교적, 역사적, 수련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련적 측면에서도 특히 한의 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된 논문은 반 등<sup>5)</sup>의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가 있다. 『三一神誥』의 第5章인 眞理訓은 三眞(性, 命, 精), 三妄(心, 氣, 身), 三途(感, 息, 觸), 18境(感-喜懼哀怒貪厭, 息-芬歹闌寒熱震濕, 觸-聲色臭味淫抵)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性通功完이라는 修鍊의 목표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의 학적 인체구성요소인 精, 氣, 神의 관점에서 볼 때 三眞인 性, 命, 精은 精, 氣, 神의 理致적인 측면으로, 三妄인 心, 氣, 身은 精, 氣, 神의 機能的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三妄(心, 氣, 身)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修鍊法인 止感, 調息, 禁觸은 한의학의 病因인 內因, 外因, 不內外因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이러한 『三一神誥』의 眞理訓을 더욱 풍부하고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 바로 『會三經』인데,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風流道를 바탕으로 眞理訓의 내용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會三經』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인용이나 소개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會三經』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인 六大成象과 三十六妙化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會三經』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氣功原理에 대하여 六大成象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六大成象을 과학적, 한의 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氣功原理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기존의 한의학 이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 II. 本 論

### 1. 『會三經』

『會三經』은 1917년 徐一이 저술한 책으로<sup>7)</sup>, 『三一神誥』의 眞理訓을 佛家の 妙法, 儒家の 易學, 道家の 玄理에 바탕을 두고 과학적으로 풀이한 것<sup>8)</sup>이다.

徐一은 민족독립운동가이자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九變圖說』, 『眞理圖說』, 『會三經』, 『五大宗旨講演』, 『三問一答』 등을 남겼다. 이러한

1) 강효신 編著, 桓人間完成 366事(서울:일증사,2002), pp.575-576.

2) 강효신 編著, 桓人間完成 366事, pp.579-580.

3) 반창열, 『三一神誥』에 나타난 醫療氣功에 關한 研究, 대한의료기공학회지, 2004;7(2),40-94.

4) 조중현·한창현·박수진·권영규, 한국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공수련 단체의 현황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5),1356-1363

5) 반창열·지선영·강효신,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大韓醫療氣功學會誌, 2000;4(2):153-186.

6) 반창열, 『三一神誥』에 나타난 醫療氣功에 關한 研究, pp.40-94.

7) 박성수,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고양:북캠프,2003), p.147.

8) 대중교 중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再版(서울:대중교출판사,2012), p.533.

저술들을 통해 볼 때, 그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폭넓은 학문적 깊이를 갖추고 있었고, 修鍊의 경지 또한 높았으며, 민족 전통사상의 脈을 계승한 정신적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會三經』은 『三一神誥』의 眞理訓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우리민족 고유의 기공수련 원리를 연구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이다.

『三一神誥』의 第5章인 眞理訓은 사람과 만물이 三眞을 부여받아 實存하고 있고, 인간은 부여받은 三眞이 온전하여 止感, 調息, 禁觸의 三法 修鍊을 통해 神의 本能에 습하여 性通功完할 수 있다고 말한다.

『會三經』은 三神·三哲·三妄·三途·三我·三倫·三界·三會·歸一의 총 9章으로 되어 있다.

특히 第1章 三神에는 六大成象의 개념이, 第9章 歸一에는 六大成象을 바탕으로 한 三十六妙化相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會三經』의 第1章 三神과 第9章 歸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第1章 三神

神은 天之主宰이며 德, 慧, 力을 갖추고 大道를 運營하는데, 이 道가 한번 변화하여 六大成象을 이룬다. 六大成象은 六大라고도 하며, 自然界的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를 말하는 것으로, 空은 天이 되고, 熱은 火가 되고, 震은 電이 되고, 濕은 水가 되고, 寒은 風이 되고, 固는 地가 된다. 六大를 풀무라고 한다면 神은 化工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였고 造化, 教化, 治化의 原理를 바탕으로 五物, 五訓, 五事를 설명하였다. 衆人이 깨달으면 哲(밝은이)이 되고 哲(밝은이)이 돌이키면 神의 本能에 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 第9章 歸一

이 章은 『會三經』의 결론에 해당하며 ‘歸一’은 一(天 또는 一神)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神道는 六大가 있는 然後에 드러나고, 人道는 眞妄이 있는 然後에 드러난다고 하였다. 여기서 六大는 第1章 三神에 나오는 六大成象, 즉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를 뜻하며 眞妄은 三眞과 三妄인 性, 命, 精, 心, 氣, 身 여섯 가지를 이룬다. 여기서 神道와 人道의 理致는 서로 通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였다. 큰 원이든 작은 원이든 크기는 다르지만 그 度는 서로 같고, 큰 네모든 작은 네모든 길이는 다르지만 그 比(비)는 서로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큰 원과 큰 네모는 神道에 해당하고 작은 원과 작은 네모는 人道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神道와 人道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理致는 서로 通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神道를 마땅히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매게 된다고 하였다. 神道에 있어서 天과 地 사이의 변화는 水, 火, 風, 電일 따름이고, 人道에 있어서 性과 身 사이의 변화와 움직임은 命, 精, 心, 氣일 따름이라고 하여, 이 움직이는 기틀이 있어서 하늘과 사람의 道를 行하는 것이라 하였다. 人의 修道는 반드시 六大의 理致를 따르고, 六大가 서로 섞여 얽히면 모두 36가지의 妙한 변화의 모습(三十六種妙化相)이 있으니, 혹시 取하고 혹시 버려서 각각 그 意趣를 다한다고 하였다. 三十六種妙化相은 총 36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原文은 다음과 같다.

觀天太虛하고 以之通性合德하며  
 觀火大明하고 以之知命合慧하며  
 觀電至健하고 以之保精合力이니라  
 觀水不波하고 以之止感心平하며  
 觀風不淫하고 以之調息氣和하며  
 觀地不遷하고 以之禁觸身康이니라  
 觀水不波하고 以之止感心平하며  
 觀風不淫하고 以之調息氣和하며  
 觀地不遷하고 以之禁觸身康이니라  
 觀地盪火하고 以之安身立命하며  
 觀風吹火하고 以之益氣延命하며  
 觀雲蔽日하고 以之斂心俟命이니라  
 觀地有震하고 以之定身固精하며  
 觀風驅雷하고 以之引氣導精하며  
 觀雲藏電하고 以之潛心蓄精이니라  
 觀電咸水하고 以之萃精淡心하며

觀火蒸水하고 以之護命操心하며  
 觀天雲遊하고 以之寬性舒心이니라  
 觀電起風하고 以之揚精抑氣하며  
 觀火引風하고 以之正命順氣하며  
 觀天風噓하고 以之衍性調氣니라  
 觀雷落地하고 以之健精攝身하며  
 觀日照地하고 以之守命養身하며  
 觀天包地하고 以之虛性實身이니라  
 觀雲駕風하고 以之寬心正氣하며  
 觀風冲土하고 以之整氣束身하며  
 觀地涵水하고 以之潤身恬心하며  
 觀水圯地하고 以之靜心持身하며  
 觀地受風하고 以之端身凝氣하며  
 觀風行水하고 以之靖氣鎮心이니라  
 觀天煦日하고 以之修性命命하며  
 觀熱起電하고 以之安命藏精하며  
 觀雷震天하고 以之勵精存性하며  
 觀天有雷하고 以之養性會精하며  
 觀電發火하고 以之鍊精順命하며  
 觀火烈空하고 以之考命盡性이니라<sup>9)</sup>

여기서 三十六種妙化相은 자연과 인간의 原理가 서로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六大成象에性, 命, 精, 心, 氣, 身을 대응시켜 36가지 자연의 변화상에 해당하는 36가지 修鍊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계의 六大成象을 觀할 때 火는 日로도 보았고, 電은 雷로도 보았으며, 水는 雲으로도 보았다.

## 2. 六大成象

### 1) 六大成象의 概念

『會三經』에 제시된 六大成象의 定義를 보면 “斯道一幻 六大成象 曰 空 熱 震 濕 寒 固 空爲天 熱爲火 震爲電 濕爲水 寒爲風 固爲地”<sup>10)</sup>라

9)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p.669-674.

10) 이 도가 한 번 변하여 여섯가지 큰 형상을 이루니, 허공과 더움과 울림과 젖음과 차움과 굳음이라, 허공은 하늘이 되고, 더움은 불이 되고, 울림은 번개가 되고, 젖음은 물이 되고, 차움은 바람이 되고, 굳음은 땅이 되니라.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536.

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문장인 “神者 天之主宰 德溥 慧炤 力强健 無形而造 無言而教 無爲而治 大哉 神之道也 卽一卽三 體之 而達無上 用之 而窮無倪”<sup>11)</sup>를 보면 一幻하여 六大成象을 이루는 斯道는 神之道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 등<sup>12)</sup>은 “神이란 우주삼라만상을 형성하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며, 우주의 모든 理致와 氣運의 主體로써 萬物을 섭리한다”라고 하였다. 즉 斯道는 우주 자연을 이루고 있는 根本原理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한 번 變하여 자연계의 六大元素인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會三經』에 제시된 六大成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면 “天 虛以冲 火 明以顯 電 健以動 水 平以深 風 和以徧 地 實以盈 虛故 其包也 大明故 其照也 普 健故 其引也 迅 平故 其潤也 廣 和故 其養也 融 實故 其載也 重”<sup>13)</sup>이라고 하였는데 이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六大成象의 개념

六大成象	空	熱	震	濕	寒	固
	天	火	電	水	風	地
特性	虛	明	健	平	和	實
	以冲	以顯	以動	以深	以徧	以盈
	包也	照也	引也	潤也	養也	載也
	大	普	迅	廣	融	重

11) 한얼님은 하늘의 임자시니, 덕은 넓고 슬기는 밝고 힘은 억세시어, 모습 없이 만드시고 말씀 없이 가르치시며 힘이 없이 다스리시니라. 크시도다 한얼님의 도여! 하나이자 셋이니 주체로는 더없는 위에 사무치며, 쓰임으로는 더없는 끝까지 다하시니라.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535.

12) 반창열·지선영·강효신, 『三一神語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大韓醫藥氣功學會誌, 2000;4(2):153-186.

13) 하늘은 비어서 행하고, 불은 밝아서 환하고, 번개는 세어서 움직이고, 물은 평평하여 깊고, 바람은 고루하여 퍼지고, 땅은 든든하여 가득 차니라. 비었으므로 그 싸안음이 크고, 밝으므로 그 비침이 두루하고, 세므로 그 당감이 빠르고, 평평하므로 그 퍼짐이 넓고, 고르므로 그 기름[養]이 융화하고, 든든하므로 그 실음이 무거우니라.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p.536-537.

그리고 第9章 歸一에는 『三一神誥』眞理訓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止感, 調息, 禁觸 三法을 演繹한 哲人의 수련법인 三十六妙化相이 제시되어 있는데, 三十六妙化相은 自然界의 六大元素인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와 사람의 性, 命, 精, 心, 氣, 身을 대응시켜 기공수련의 原理를 밝혀 놓은 것이다<sup>14)</sup>. 이는 한의학에서 기본이 되는 天人合一 또는 天人相應 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sup>15)</sup>이라고 하여 만물을 대표하는 人間은 天地로부터 나왔고 天地自然에 의지하여 自然의 變化에 적응하면서 生命活動을 영위한다고 하였고,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九竅五臟十二節, 皆通乎天氣”<sup>16)</sup>라고 하여 人間의 生命活動이 自然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通하고 있다<sup>17)</sup>고 하였다.

한의학에서는 자연을 觀함에 있어 六氣(風, 寒, 暑, 濕, 燥, 火)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六氣는 一元的 本體가 動靜分化的 陰陽이 氣의 多少에 따라 다시 三陰三陽으로 分化되어 그 작용에 따라 구체적 현상으로 발현된 것<sup>18)</sup>이다. 그리고 六大成象은 우주 자연을 이루고 있는 根本原理인 神之道가 한 번 變하여 자연계의 六大元素인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六氣와 六大成象은 모두 자연의 根原이 變하여 分化된 것으로 볼 수 있고, 周易의 8卦와는 달리 자연을 6가지 범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연계의 六氣와 六大成象은 그 原理가 인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六氣 전체가 6가지 기후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六大成象은 天과 地의 두 축 사이에서

水, 火, 風, 電이라는 4가지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 2) 六大成象의 科學的 分析

六大成象에서 空은 天이 되며 그 특성이 비어 있는 것이라 했고, 固는 地가 되며 그 특성이 채워져 있는 것이라 했으므로, 空(天)은 六大成象 중 가장 無形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固(地)는 六大成象 중 가장 有形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과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空(天)은 無形の 에너지 개념에 해당하고, 固(地)는 有形의 물질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三一神誥·眞理訓』에서 “惟衆 迷地 三妄 着根 曰 心 氣 身 心依性 有善惡 善福惡禍 氣依命 有清濁 清壽濁殃 身依精 有厚薄 厚貴薄賤”<sup>19)</sup>이라고 하여 三妄(心, 氣, 身)이 미혹한 땅에 뿌리내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만물이 배태되는 초기, 즉 이 세계에 만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때에 三妄(心, 氣, 身)이 발생하여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sup>20)</sup>. 그리고 三妄인 心, 氣, 身이 三眞인 性, 命, 精에 依存함으로써 사람의 길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는데<sup>21)</sup>, 이는 三眞인 性, 命, 精의 理致에 의하여 三妄인 心, 氣, 身이 現象적 세계에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다. 방<sup>22)</sup>은 “만물은 파동 특성과 입자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으며 迷地하는 것은 곧 입자 특성에 연유하여 있는 듯이 보일 뿐인 경계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물은 근본적으로 파동일 뿐이며 파동이 폐쇄회로를 이루어 운동할 때 입자적 특성을 보

14) 반창열·지선영·강효신,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pp.153-186.

15) 王水 編註, 新編 黃帝內經素問(서울:大星文化社, 1994), p.179.

16) 王水 編註, 新編 黃帝內經素問, p.15.

17) 김완희, 한의학원론, 再版(서울:成輔社, 2003), pp.73-76.

18) 신흥목·김길환, 삼음삼양의 오행육기 기화생리에 관한 연구(1), 동서의학, 1991;16(2):36-41.

19) 못 사람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달이 뿌리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니라. 마음은 성품에 의지한 것으로서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화가 되며, 기운은 목숨에 의지한 것으로서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몸은 정기에 의지한 것으로서 후하고 박함이 있으니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p.58-59.

20)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p.568-585.

21) 반창열·지선영·강효신,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pp.153-186.

22) 방건용, 氣가 세상을 움직인다 1부(대전:예인, 2005), p.80.

이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三眞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인식되는 측면, 즉 파동적 특성을 인식하여 헛갈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三妄은 분리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측면, 즉 입자적 특성만을 인식하여 헛갈리는 상태를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三眞인 性命精이 상대적으로 無形的이고 理致的인 개념이라면 三妄인 心氣身은 三眞에 비해 보다 有形的이고 物質的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自然界의 六大成象인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는 人間의 性, 命, 精, 心, 氣, 身과 서로 대응되므로 이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六大成象과 眞妄의 개념

六大成象	空	熱	震	濕	寒	固
	天	火	電	水	風	地
特性	虛以冲	明以顯	健以動	平以深	和以徧	實以盈
	包也大	照也普	引也迅	潤也廣	養也融	載也重
	無形的, 理致的 파동적 특성			有形的, 物質的 입자적 특성		
眞妄	性	命	精	心	氣	身
	三眞			三妄		

無形的 三眞(性, 命, 精)에 대응되는 空(天), 熱(火), 震(電)은 과학적으로는 파동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파동은 크게 전자기파와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빛을 포함하는 개념인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매질 없이도 공간 속을 진행하며<sup>23)</sup>, 파장에 따라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나뉘는데, 에너지와 쓰임에 차이가 있다<sup>24)</sup>.

23) 나카무라 겐타로 외 저, 강금희 譯, 파동의 사이언스 (서울:뉴턴코리아,2010), pp.30-31.

마이크로파(microwave)는 파장의 범위가 보통 0.1mm~1m이며 파장이 0.1mm이상의 긴 전파는 퍼지면서 진행하고 거리의 구석구석까지 다다르기 쉬워서 통신이나 방송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파장이 약 12.2cm인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는 극성분자인 물을 심하게 회전시켜서 주위의 분자와 마찰을 일으켜 온도를 높인다<sup>25)</sup>.

적외선(infrared ray)은 파장의 범위가 보통 0.7μm~1mm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 적외선은 강한 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열선이라고도 한다<sup>26)</sup>.

가시광선(visible rays)은 파장의 범위가 보통 380~780nm이며 눈의 망막에 도달하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의 영역이다<sup>27)</sup>. 빨강보다 파장이 긴 빛을 적외선, 보라보다 파장이 짧은 빛을 자외선이라고 한다.

자외선(ultraviolet rays)은 파장의 범위가 보통 100~400nm이며 적외선을 열선이라고 하는데 비해, 자외선은 화학작용이 강하므로 화학선이라 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X선이나 감마선보다 투과성은 낮지만 가시광선에 비해 에너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세포의 분자나 염색체에 작용하여 세포손상을 주므로 살균 소독에 많이 이용된다<sup>28)</sup>.

X선(X-Ray)은 파장의 범위가 보통 1pm~10nm이며 원자 안의 전자에서 발생한다. 에너지가 높아 많은 양을 쬐면 위험하지만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이용되고, 투과력이 커서 물질의 결정 구조 등을 조사하는 방사선 투과 검사와 의학 분야의 진단 등에 이용된다<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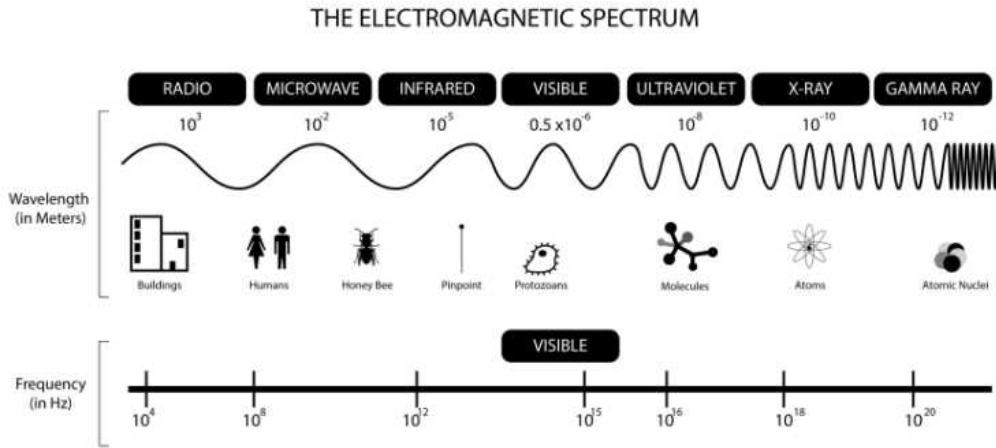
24) Halliday · Resnick 저, 김중오 譯, 물리학총론2부, 제 4판(서울:교학사,1992), p.949.

25) 나카무라 겐타로 외 저, 강금희 譯, 파동의 사이언스,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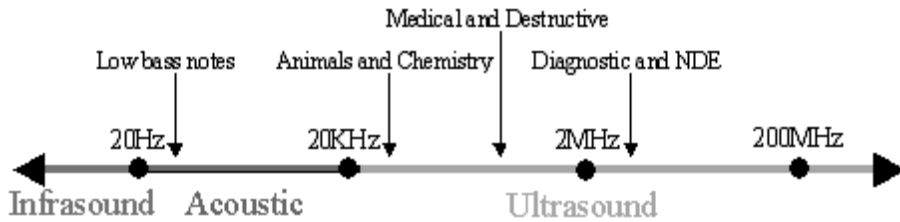
26) 이승희, 파장대역별 적외선 조사장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피부세포의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77.

27) 윤희모, 가시광선 조사로 손상된 광수용체층의 회복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연구, 1992,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3.

28) 박재범, 상수처리 시 자외선 소독공정의 효율분석기법 개발, 2011,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그림6> 전자기파(빛)의 스펙트럼



<그림7> 소리의 스펙트럼

감마선(gamma ray)은 파장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약 0.01nm이하로 알려져 있고 원자핵에서 발생하며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영역에 해당한다. 감마선의 응용분야는 x-선과 거의 같지만, x-선보다 큰 투과력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며 의학에서의 진단, 암의 치료, 살균, 금속재료의 내부결함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sup>29)</sup>.

이상에서 살펴본 전자기파와는 달리 소리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며, 사람의 가청주파수는 약 20~20000Hz이고, 파장으로는 약 1.7cm~17m가 된다<sup>31)</sup>. 또한 사람이 들

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보다 진동수가 낮은 파를 극저음파라 하고, 가청주파수보다 진동수가 높은 파를 초음파라 한다<sup>32)</sup>.

<그림6>과 <그림7>은 이상에서 설명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radiation)와 소리(sound)를 파장과 진동수에 따라 분해하여 배열한 것이다.

<그림6>은 파장과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파장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는 빌딩에서부터 작게는 원자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을 가져와 표현하고 있다.

29) 나카무라 겐타로 외 저, 강금희 역, 파동의 사이언스, pp.26-27.

30) 나카무라 겐타로 외 저, 강금희 역, 파동의 사이언스, pp.26-33.

31) 나카무라 겐타로 외 저, 강금희 역, 파동의 사이언스, pp.24-25.

32) Halliday · Resnick 저, 김종오 역, 물리학총론1부, 제 15판(서울:교학사,2004), pp.454-455.

<그림7>은 진동수에 따른 소리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소리는 전반적으로 전자기파보다 진동수가 낮은 파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會三經』에서는 空(天), 熱(火), 震(電)에 대해 “空爲天하고 天은 虛以沖하고 虛故로 其包也 大. 熱爲火하고 火는 明以顯하고 明故로 其照也 普. 震爲電하고 電은 健以動하고 健故로 其引也 迅.”<sup>33)</sup>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空(天), 熱(火), 震(電)을 파동의 개념으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空(天)은 비어 있다고 했으므로 無形이며 非可視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可視광선의 영역을 벗어난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짧고 투과력이 큰 X선, 감마선이 空(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熱(火)는 밝게 드러나고 비침이 넓다고 했으니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영역이 熱(火)에 해당할 것이고 熱(火)라는 말에는 온도개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과 적외선도 熱(火)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熱(火)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의 영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震(電)은 진동, 번개, 전기, 빠름을 뜻한다고 했으니 진동의 의미에서 본다면 분자의 진동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마이크로파와 적외선이 震(電)에 해당할 것이고, 번개가 빛나고 번쩍이는 의미에서 본다면 가시광선영역이 震(電)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震에는 우레, 천둥, 울림의 뜻이 있으므로 파동의 일종인 소리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震(電)은 소리,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의 영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空(天), 熱(火), 震(電)에 해당되는 파동의 경향성을 볼 때, 震(電)→熱(火)→空(天)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므로 에너지는 증가하고, 파장은 짧아지므로 無形에 가까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有形の 三妄에 대응되는 濕(水), 寒(風), 固(地)

33) 허공은 하늘이 되고 하늘은 비어서 험하고 비었으므로 그 색안음이 크다. 더움은 불이 되고 불은 밝아서 환하고 밝으므로 그 비침이 두루한다. 울림은 번개가 되고 번개는 세어서 움직이고 세므로 그 당김이 빠르다.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p.536-537.

는 과학적으로는 물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질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진다면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으며, 세분해 가면 결국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의 최소단위인 소립자에 이르게 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에 따라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질량과 부피를 갖는 것을 뜻하며 물리학이나 화학에서는 물질을 원자나 분자의 집합체로서 정의한다. 물질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을 가지며, 물질의 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고체는 구성 원자나 분자 사이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개개의 원자나 분자는 자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주어진 임의의 온도에서 구성 입자는 평형 위치 주위에서 진동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진동의 진폭이 커지고 구성 입자의 간격이 커져 부피가 증가한다<sup>34)</sup>. 물질의 온도를 상승시키려면 물체에 에너지를 가해주어야 하고, 물질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할 때에도 또한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하는 용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증발, 고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승화에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물질에 에너지를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구성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구성 입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증가하므로 고체에서 액체, 기체 순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분자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고 자유운동이 점점 활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會三經』에서는 濕(水), 寒(風), 固(地)에 대해 “濕爲水하고 水는 平以深하고 平故로 其潤也 廣. 寒爲風하고 風은 和以徧하고 和故로 其養也 融. 固爲地하고 地는 實以盈하고 實故로 其載也 重.”<sup>36)</sup>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濕(水), 寒

34) Halliday · Resnick 著, 김중오 譯, 물리학총론1부, pp.495-496.

35) Halliday · Resnick 著, 김중오 譯, 물리학총론1부, pp.510-511.

36) 젖음은 물이 되고 물은 평평하여 깊고 평평하므로 그 퍼짐이 넓다. 차움은 바람이 되고 바람은 고루 하여 퍼지고 고르므로 그 기쁨이 융화하다. 굳음은 땅이 되고 땅은 든든하여 가득 차고 든든하므로 그 실음이 무겁다.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風), 固(地)를 物質의 狀態변화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濕은 습기, 물기, 구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에 높은 온도의 熱이 가해져 분자운동이 활발해진 기체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水에 대해 『會三經』에서는 평평하고 깊어 그 적심이 넓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의 水는 액체인 물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濕(水)은 액체와 기체 상태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寒은 온도적 개념으로 추위에 해당하고 風은 바람, 기류를 의미하므로 기체에 해당한다. 風에 대해 『會三經』에서는 和하여 두루 미치고, 그 기류가 融하다고 하였는데, 融의 의미는 和하다, 盛하다, 따뜻하다 정도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風은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상태의 적당한 바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자운동론적 관점으로 볼 때 온도에 대한 역학적 이론들은 열을 입자들의 움직임으로 해석한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은 끊임없이 운동하는데, 물질의 온도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sup>37)</sup>. 즉 寒은 낮은 온도를 의미하며, 이는 진동수가 낮으며 에너지가 높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寒(風)은 濕에 비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의 기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固는 단단하다는 뜻이고, 地는 땅이므로 고체에 해당한다. 地에 대해 『會三經』에서는 實하여 채워져 있고 무거운 것을 신는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의 地는 고정된 상태의 단단한 땅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固(地)는 원자나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의 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濕(水), 寒(風), 固(地)에 해당되는 물질의 상을 볼 때, 固(地)→寒(風)→濕(水)으로 갈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지고,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므로 無形에 가까워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三眞인 性, 命, 精이 상대적으로 無形的이고 理致的인 개념이라면 三妄인 心, 氣, 身은 三眞에 비해 보다 有形的이고 物質的인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三眞과 대응되는 空(天), 熱(火), 震(電)은 無形的 에너지 개념인 파동으로 이해해 보았고, 三妄과 대응되는 濕(水), 寒(風), 固(地)는 有形的인 물질의 상으로 이해해 보았다.

파동은 상대적으로 진동수와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빛)와 상대적으로 진동수와 에너지가 낮은 소리로 대별되는데, 空(天), 熱(火), 震(電)에 대한 『會三經』의 설명을 파동의 과학적인 개념과 연결시켜 空(天)은 X선, 감마선의 영역에, 熱(火)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의 영역에, 震(電)은 소리,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의 영역에 위치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空(天), 熱(火), 震(電)이 위치해 있는 파동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震(電)→熱(火)→空(天)으로 갈수록 진동수와 에너지는 증가하고 파장은 짧아지면서 점차적으로 無形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한편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의 세가지 기본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분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운동성이 높아질수록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데, 固(地)→寒(風)→濕(水)으로 갈수록 운동에너지가 커지고,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므로 점차적으로 無形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六大成象은 固(地)→寒(風)→濕(水)→震(電)→熱(火)→空(天)으로 갈수록 높은 진동, 높은 에너지, 그리고 無의 상태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 3) 六大成象과 經絡(三陰三陽)

六大成象은 自然의 6가지 기본 구성 요소이고 한의학에서의 六氣는 대기권의 하늘 氣運을 6가지로 분류한 것<sup>38)</sup>이다. 자연에 六氣가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이에 相應하는 六氣가 존재하며<sup>39)</sup>,

pp.536-537.

37) Halliday · Resnick 著, 김종오 譯, 물리학총론1부, pp.486-493.

38)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회(과주:집문당,2008), p.81.

39) 신흥목 · 김길환, 십이경맥의 육기 조절생리에 관한 연구2, 동서의학, 1991;16(3):20-35.

자연의 환경조건인 외부 六氣가 피부, 호흡 및, 음식을 통해 인체로 들어오면 이에 상응하는 내부 六氣가 활동하여 兩者 間에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곧 六氣는 대사적 측면으로 관찰되며 내부 六氣의 통로가 經絡의 六經이 된다<sup>40)</sup>. 따라서 經絡은 자연계 六氣의 변화규율에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六經의 氣化작용에 의해 生理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sup>41)</sup>고 볼 수 있으므로 經絡은 六大成象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氣化는 氣의 運動變化를 의미하는 動的인 개념으로 인체의 生理기전과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한의학 용어이다<sup>42)</sup>.

六經은 一氣의 動靜으로 分化된 陰陽에서 유래하는데, 陰陽은 자연을 인식하고 사물을 분석하는 동양의 우주관으로 周易에서는 太陰과 少陰, 太陽과 少陽의 二陰二陽으로 구분하였으나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순서와 질량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兩陽合明의 陽明과 兩陰交盡의 厥陰이 제시되어 太陽, 陽明, 少陽의 三陽과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으로 分化된 三陰三陽의 六經이 형성되었다<sup>43)</sup>.

六經이란 臟腑經絡의 陰陽氣血多少 및 기능상의 특징을 개괄하는 것으로<sup>44)</sup>, 六氣의 氣化를 의미하며 厥陰은 風, 少陰은 火, 太陰은 濕, 少陽은 相火, 陽明은 燥, 太陽은 寒의 氣化를 나타낸다<sup>45)</sup>.

六經은 手足으로 구분되고, 六臟六腑의 하나와 결합하여 經絡系統의 주체인 12經脈을 형성하는데, 太陰은 足太陰脾經과 手太陰肺經, 少陰은 足少陰腎經과 手少陰心經, 厥陰은 足厥陰肝經과 手厥陰心包經, 少陽은 足少陽膽經과 手少陽三焦經, 陽明은 足陽明胃經과 手陽明大腸經, 太陽은 足太陽膀胱經과 手太陽小腸經의 氣化를 통괄한

다<sup>46)</sup>. 그리고 『素問·血氣形志篇』에서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sup>47)</sup>라고 하였듯이 12經脈은 手足의 陰經과 陽經이 表裏로 6쌍의 짝을 이루어 太陰과 陽明, 少陰과 太陽, 厥陰과 少陽이 서로 表裏관계를 이루고 있다. 六經의 表裏는 陰陽氣化의 相反, 相成으로 체내의 寒熱既濟, 燥濕相濟, 風火相生의 조화를 이루어 臟腑經絡 活動의 恒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六經의 表裏에 의한 六氣의 氣化는 生理, 病理적인 관점에서 臟腑와 經絡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sup>48)</sup>.

人體에서 六經의 기능은 太陰-陽明經의 습도 조절, 少陰-太陽經의 온도조절, 厥陰-少陽經의 완급조절로 요약할 수 있다<sup>49)</sup>. 이에 대해 이<sup>50)</sup>는 “太陰은 식욕 및 신체에 있어서의 질량의 증가를 나타내고, 반대로 陽明은 식욕 및 신체에 있어서의 질량의 감소를 나타낸다. 少陰은 성욕, 열정 및 체온의 증가를 나타내고, 반대로 太陽은 성욕의 감퇴, 공포감 및 체온의 저하와 한랭감을 나타낸다. 厥陰은 권력욕, 명예욕, 지식욕, 긴장, 수렴, 수축의 기능을 나타내며, 반대로 少陽은 망각, 해탈, 여유로움, 이완의 기능을 나타낸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經絡이 臟腑의 氣血 유통통로며 人體 六氣의 恒상성을 유지하는 生理체계라는 것을 뜻한다. 經絡간 表裏관계는 서로 相反되는 기능을 나타내면서 상호 견제, 조화를 이루어 恒상성을 이루고 있는 관계인데 하나가 항진되면 그와 表裏관계에 해당하는 經絡의 기능이 저하되고, 하나가 저하되면 그와 表裏관계에 해당하는 經絡의 기능이 항진된다. 따라서 經絡은 기본적으로 六經의 陽明-太陰, 太陽-少陰, 厥陰-少

40)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p.97.

41) 김정우·김길원,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동의생리학회지, 1990;5(1):119-149.

42) 김정우·김길원,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pp.119-149.

4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p.407.

44) 양운통, 黃帝內經類析(中華民國:人民出版社,1986), p.134.

45)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p.407.

46)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p.408.

47) 王冰 編註, 新編 黃帝內經素問, p.176.

48)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pp.407-408.

49) 김홍경, 동양의학혁명-총론(서울:신농백초,2009), p.311.

50) 이봉효, 근막통증후군과 십이경근의 비교 고찰 및 육경이론에 따른 해석, 대한침구학회지, 2007;24(5):33-41.

陽의 表裏관계에 의해 습도, 온도, 완급이 운영, 조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六大成象과 六經 間的 관계를 살펴보면 六大成象의 震-濕, 熱-寒, 空-固가 각각 六經의 表裏관계인 陽明-太陰, 少陰-太陽, 厥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震-濕은 앞에서 설명한 '震爲電, 濕爲水'와 『會三經』에서 “電多燥. 雨多濕”<sup>51)</sup>이라고 한 것을 근거로 할 때 震은 燥가 되고, 水는 濕이 되므로 六經의 陽明-太陰이 하는 습도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寒-熱에서 寒은 風이 되고, 熱은 火가 되는데, 앞서 風은 온도가 높지 않은 상태의 바람으로 이해했고, 火는 높은 온도 또는 밝음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寒-熱을 바람을 뜻하는 風과 밝음을 뜻하는 火의 개념보다는 寒과 熱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온도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어 생각한다면 六經의 太陽-少陰이 하는 온도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空-固에서 空은 비움, 하늘, 비물질, 빛에 해당하고, 少陽은 망각, 해탈, 여유로움, 이완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空은 少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固는 굳음, 땅, 채움, 물질, 어둠에 해당하고, 厥陰은 권력욕, 명예욕, 지식욕, 긴장, 수렴, 수축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므로 固는 厥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空은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이완하고, 밝아지는 상태를 뜻하고 固는 채우고 욕심을 가지며, 긴장하고, 어두워지는 상태를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空-固는 六經의 厥陰-少陽이 하는 완급조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六經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經絡生理의 복잡한 현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六經에 대한 정의나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현 한의학계 상황에서 六大成象을 통한 접근은 六經에 흐르는 氣運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六大成象과 經絡의 관계

濕 (太陰)	濕도조절	震(燥) (陽明)
熱 (少陰)	溫度조절	寒 (太陽)
固 (厥陰)	緩急조절	空 (少陽)

### III. 結 論

본 연구에서는 『會三經』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會三經』에 나타난 六大成象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한의학과 의 상관성에 관하여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會三經』은 『三一神誥·眞理訓』을 불교의 妙法, 유가의 易學, 도가의 玄理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 과학적으로 풀이한 것으로 六大成象을 기본으로 하여 『三一神誥』의 原理를 三十六妙化相으로 歸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2. 六大成象인 空(天), 熱(火), 震(電), 濕(水), 寒(風), 固(地)는 自然界의 六大元素를 의미하며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人間의 性, 命, 精, 心, 氣, 身과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룬다. 이는 自然과 人間의 理致는 서로 通하며 同一한 法則으로 運營된다는 것을 뜻한다.

3. 자연계의 六大成象과 人間의 性, 命, 精, 心, 氣, 身이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無形的이고 理致的인 性, 命, 精에 대응되는 空(天), 熱(火), 震(電)은 파동의 개념으로 보았고, 보다 有形的이고 物質的인 心, 氣, 身에 대응되는 濕(水), 寒(風), 固(地)는 분자의 운동성에 의한 물질의 상태변화로 보았다. 파동은

51) 대중교 중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p.608.

상대적으로 진동수와 에너지가 높은 전자기파(빛)와 상대적으로 진동수와 에너지가 낮은 소리로 대별되고, 물질은 분자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운동성이 높아질수록 고체에서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하므로 六大成象은 固(地)→寒(風)→濕(水)→震(電)→熱(火)→空(天)으로 갈수록 높은 진동, 높은 에너지, 그리고 無의 상태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았다.

4. 『會三經』에서 자연을 六大成象이라는 6가지 범주로 인식한 것과 한의학에서 자연을 六氣라는 6가지 범주로 인식한 것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六大成象과 한의학의 經絡을 연결시켰다. 자연에 六氣가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이에 相應하는 六氣가 존재하며, 이것의 통로가 經絡의 六經이 되므로 經絡은 六大成象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六經인 太陽, 陽明, 少陽의 三陽과 太陰, 少陰, 厥陰의 三陰은 太陽-少陰, 陽明-太陰, 厥陰-少陽이 서로 表裏가 되어 人體 내의 寒熱, 燥濕, 緩急의 조화를 유지함으로써 經絡生理를 이루는데, 이러한 寒-熱, 燥-濕, 緩-急은 六大成象인 寒-熱, 震-濕, 空-固와 대응되므로 六大成象에서 經絡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會三經』의 六大成象에 담긴 氣功原理는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의학과 연관성 또한 크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氣功學적 이론과 원리를 적용한 우리민족 고유의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의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精, 氣, 神의 관점과 『三一神誥』의 眞理訓에서 제시하고 있는 三眞(性, 命, 精)과 三妄(心, 氣, 身)의 개념을 접목시키면 精=精·身, 氣=命·氣, 神=性·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會三經』의 六大成象과 한의학 經絡生理의 핵심인 六經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精, 氣, 神을 六經과 더욱 긴밀하게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를 六臟六腑의 개념과도 연결한다면 한의학의 精, 氣·神 이론과 經絡, 臟腑를 보다 긴밀하고 통일

성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1. 강효신 編著, 桓人間完成 366事, 서울, 일지사, pp.575-6, 579-80, 2002.
2. 김완희, 한의학원론 再版, 서울, 成輔社, pp.73-6, 2003.
3. 김정우·김길훤, 經絡의 氣化生理에 關한 研究, 동의생리학회지, 5(1):119-49, 1990.
4. 김홍경, 동양의학혁명-총론, 서울, 신농백초, p.311, 2009.
5. 나카무라 겐타로 외 著, 강금희 譯, 과동의 사이언스, 서울, 뉴턴코리아, pp.24-34, 2010.
6. 대중교 종경 편수위원회, 대중교경전 再版, 서울, 대중교출판사, pp.58-59, 533-7, 568-85, p.608, pp.669-74, 2012.
7. 박성수,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 고양, 북캠프, p.147, 2003.
8. 박재범, 상수처리 시 자외선 소독공정의 효율분석기법 개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9. 반창열, 『三一神誥』에 나타난 醫療氣功에 關한 研究, 대한의료기공학회지, 7(2):40-94, 2004.
10. 반창열·지선영·강효신, 『三一神誥·眞理訓』에 나타난 氣功原理 및 韓醫學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大韓醫療氣功學會誌, 4(2):153-86, 2000.
11. 방건웅, 氣가 세상을 움직인다 1부, 대전, 예인, p.80, 2005.
12. 신흥목·김길훤, 삼음삼양의 오행육기 기화생리에 관한 연구(1), 동서의학, 16(2):36-41, 1991.
13. 신흥목·김길훤, 십이경맥의 육기 조절생리에 관한 연구2, 동서의학, 16(3):20-35, 1991.
14. 양운통, 黃帝內經類析, 中華民國, 人民出

- 版社, p.134, 1986.
15. 王水 編註, 新編 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p.15, 176, 179, 1994.
  16. 윤희모, 가시광선 조사로 손상된 광수용체 층의 회복에 관한 전자현미경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17. 이봉효, 근막통증후군과 십이경근의 비교 고찰 및 육경이론에 따른 해석, 대한침구학회지, 24(5):33-41, 2007.
  18. 이승희, 파장대역별 적외선 조사장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피부세포의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9.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동의생리학, 파주, 집문당, p.81, 97, pp.407-8, 2008.
  20. Halliday · Resnick 著, 김종오 譯, 물리학 총론1부 제15판, 서울, 교학사, pp.454-5, 486-93, 495-6, 510-1, 2004.
  21. Halliday · Resnick 著, 김종오 譯, 물리학 총론2부 제4판, 서울, 교학사, p.949, 1992.
  22. Jonathan S Urie, BW EM spectrum.png, 2013.07.30,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BW\\_EM\\_spectrum.pn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BW_EM_spectrum.png))
  23. LightYear at en.wikipedia, Ultrasound range diagram.png, 2007.01.11,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Ultrasound\\_range\\_diagram.png](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Ultrasound_range_diagram.png))